

석면 유해성 · 관리방안 세미나 9월8일 개최

석면 사용근절 및 폐석면 안전관리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 및 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로 9월8일 2-5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.

석면분진을 장기간 호흡하면 석면폐나 폐암, 악성중피종 등 치유하기 어려운 악성질환이 발병되고,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친 이후 자각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유럽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의 사용을 금지했으며, 일본도 2004년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. 또 이미 사용중인 석면은 폐기되어도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
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백석면 및 기타 석면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.

석면 사용금지 세미나 프로그램

시 간	내 용	발표자
14:00-14:10	개회사	조정식 국회의원
14:10-14:20	인사말	윤준하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
14:20-14:30	축사	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
14:30-14:50	주제발표-석면의 유해성 및 바람직한 석면관리 방안	백남원(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)
14:50-15:20	주제발표-국내 석면 관리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	김용진(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과장)
15:20-15:40	주제발표-국내 폐석면 관리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	김종효(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과장)
15:40-16:20	지정 토론	- 구기영(한국석면환경협회 사무총장) - 김정수(한겨레 신문 환경담당 기자) - 구준모(한국석면협회 회장) - 석미희(ETS 컨설팅 대표) - 김동일(카톨릭대학 교수) - 홍수열(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)
16:20-17:00	질의 및 응답	

폐석면 관리와 관련해서도 최근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으나 외국의 관리제도와 비교해 많은 허점이 있으며, 폐석면 관리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.

따라서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사용근절 및 폐석면 안전관리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.

<화학저널 2005/09/08>